

전남~제주 뱃길 개설 잇따라

장흥~제주 이어 광양~제주 카페리 신규 항로 추진

한라고속훼리, 주내 신청서

3500t급 이르면 내달취항

장흥~제주간 카페리 항로 신설에 이어 최근 광양~제주 항로 개설도 추진되면서 전남~제주간 뱃길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.

20일 광양지역 선사인 한라고속 훼리에 따르면 광양~제주 성산포간

카페리 신규 항로 취항을 위해 이번주 안에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에 항로 신설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.

카페리 취항시기는 내달 중순이나 8월 초순으로 승객 700명·차량(승용차 기준) 80대를 실을 수 있는 3500t 규모에, 소요시간은 5시간이다.

한라고속훼리 측은 올해 말 광양~전주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중부권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에 따

른 수요, 현재 부산항을 통해 제주도 까지 12시간 이상 걸리는 영남권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경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.

이에 앞서 장흥해운도 장흥 노력 항~성산포 항로에 2000t급 카페리를 도입, 내달 초 취항하기로 했다.

590명 승객과 9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 여객선의 항로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대로, 현재 전남~제주

를 잇는 완도·목포·고흥·녹동 3곳 항로의 소요시간이 3~4시간대에 비하면 최단 시간이다. 여수 해양항만청 김양기 계장은 “불경기 여파 등으로 해외 대신 제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특히 2~3년 새 수학여행지로 제조명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”며 “고흥 녹동항의 경우 매년 이용객이 20% 이상 늘고 있다”고 말했다. /장필수기자 bungy@

장흥~제주 여객선 운항

시민단체도 반발

완도 지역 어민들에 이어 시민사회 단체도 장흥~제주간 여객선 운항에 반발하고 나섰다.

완도군번영회·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·완도군청년회, 완도 청년회의 소 등 1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‘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(회장 최상문)’는 최근 장흥~제주 간 여객선 운항 조건부 허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“여객선 운항시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조류 대처와 소형 어로 작업선이 침몰할 우려가 있다”며 “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”라고 주장했다. 협의회는 또 인근 양식장 시설물 파손은 물론 해양생물 성장 둔화·고사사태가 우려된다며 조건부 면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.

협의회는 앞으로 운항허가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키로 했다.

/서부취재본부=정은조기자 ejchung@



전남서 귀농희망 찾는다

귀농·귀촌을 꿈꾸는 수도권거주 직장인들이 지난 1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을 견학하고 있다.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19~20일 수도권 직장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담양·강진지역 성공적인 귀농현장 방문 등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했다. <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>

해남 고산 윤선도 전시관 8월 임시개관

천적 활용 축사 파리 퇴치

전남, 배뇨랑금종벌 보급